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0. Vol. 15, No. 2, 227 - 242

##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의 타당도 연구<sup>†</sup>

이 기 원    현 명 호<sup>‡</sup>    이 수 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는 자살을 생각했지만 자살 실행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측정하기 위해 Linehan이 개발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자살을 방지하는 긍정적 요소(생존과 대처 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한 걱정)와 자살행동에 대한 부정적 요소(죽음에 대한 공포, 사회적 비난, 도덕적 금기)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 남녀 301명(남자 143명, 여자 158명)을 대상으로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 하위요인 즉 생존과 대처 신념, 죽음 공포와 사회적 비난, 가족 책임과 자녀 걱정 및 미래 기대가 추출되었다. 자살하지 않는 이유의 요인 중 죽음공포 및 사회적 비난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은 집단과 자살 생각을 가진 집단,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한 집단을 변별해 주었다. 특히 가족 책임과 자녀 걱정 요인은 자살 시도를 포함한 자살 생각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구분해 주었고 미래 기대 요인은 자살 시도자와 비시도자 집단을 분명히 구분해 주었다. 또한 낙관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 이유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살 예방을 위한 개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제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 타당도, 낙관주의

<sup>†</sup> 이 척도는 Reasons for Living Inventory의 저자 Marscha Linehan 허락하에 연구되었다. 척도명을 직역한다면 '살아야 할 이유'이지만 척도의 원목적과 피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살하지 않는 이유로 번역하였다.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mailto:hyunmh@cau.ac.kr)

자살을 예측하는 여러 요소 중 특히 자살 생각은 자살 시도와 유사 자살 행위 및 자살 사망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왔다(Beck & Maria, 1979). 자살 행동 직전의 자기 파괴적 생각이나 충동적 사고, 인지적 몰락(cognitive deconstruction)<sup>1)</sup> 등은 자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반대로 삶에 대한 의지나 긍정적 사고 등은 자살 행동을 방지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Dyck, 1991).

자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나 보고는 자살 실태나 위험요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효과적인 개입 프로그램이나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2009년 한국자살예방 협회에서 발간된 “자살의 이해와 예방”에서도 자살의 위험요소나 원인은 크게 다룬 반면, 보호요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 자살 예방 전략은 자살로 이어지는 선행조건의 수를 감소시키며 개인의 취약성을 강화하고 보호요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박상철, 조용범, 1998). 2000년 미공군에서 고안한 획기적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인 LINK(Look for possible concerns, Inquire about concerns, Note level of risk, Know referral resources and strategies)에서도 위험요소인 인간관계 문제, 재정문제, 직무이동, 희망상실, 절망감 등을 감소시키는 반면, 보호요소인 부대 결집, 동료애, 공동체 참여, 사회적 지원, 종교 활동 등은 증가시키는 데에 힘쓰고 있다(윤민재, 2008).

자살의 위험을 낮추고 보호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자살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살의 원인 탐색에 대한 많은 주목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집단이나 그 집단 특성을 나타내주는 요인에 대한 탐색은 매우 드물다. 연령대와 관련하여 청소년이나 노인의 자살 보호요인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연구가 있어 왔다(김순규, 2008; 정은숙, 2005). 또한 대부분의 자살에 대한 이론이 주로 자살에 대한 단일 관점과 위험요소, 취약성을 조명하는 데 반해, Maris, Berman과 Silverman(2000)은 정신의학과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사이의 상호작용의 복잡성에 주목하였고 세부적인 변인을 규명하였다. 이들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삶의 과정과 이에 따른 자살 예방에서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자살로 인한 사망은 정신과적 질병, 생물학, 심리학과 사회학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개인이 위험한 자살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특정 자극이 결정적인 역치를 넘어서게 될 때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일차적으로 우울증과 같은 과거 병력이나 처벌적인 양육 환경 등과 같은 자살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이차적으로는 정서 장애와 같은 정신 병리의 자살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모두 자살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만약 약물치료나 대처 기술, 희망감, 인지적 융통성, 문제없는 결혼과 자녀 및 사회적 지지 등의 보호요인이 있다면 자살 행동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살 평가 척도를 살펴봐도 이와 같은 편중을 확인할 수 있다. Range와 Knott(1997)는 현재

1) 정신기능의 협소화로 일상사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피상적이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결국 부정적으로 인식된 자신과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수단으로써 자살과 같은 극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개발된 20개의 자살 평가척도 중 자살 완충 척도는 단 두 개뿐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자살 관련 척도 중 자살 보호요인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로서 이는 자살을 생각했을 때 자살하지 않는 이유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Linehan, Goodstein, Nielson과 Chiles(1983)가 처음 개발한 것으로서 이들은 빅터 플랭클이 발견한 삶의 욕구에 주목했다. Linehan 등은 자살을 생각해 보았거나 혹은 자살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자살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심층 면접하였고, 그로부터 도출된 항목을 다시 분류, 요약하여 척도로 만들었다. 따라서 이 요소는 주로 자살에 대해 저항하는 신념과 삶에 대한 생존적 집념 및 자살을 방지하는 생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에는 6개의 하위 요인이 있다. 그 중 세 개는 주로 자살을 완충시키는 긍정적 요소로서 3가지 요인 즉, 생존과 대처 신념(Survival Coping Beliefs, 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to Family, 예: 나의 가족들은 나를 의지하고 있고 나를 필요로 한다), 자녀에 관한 걱정(Child-Related Concerns, 예: 자살은 내 자녀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 이에 속한다. 또한 나머지 세 개의 요인은 자살 행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루어져 있다. 즉, 자살에 대한 공포(Fear of Suicide, 예: 나는 죽음이 두렵다), 사회적 비난에 대한 공포(Fear of Social Disapproval, 예: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걱정이다), 도덕적 금기(Moral Objection, 예: 나의 종교적 신념이

자살을 허락지 않는다)와 같은 것이다(Kissane & McLaren, 2006).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자살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청소년의 경우 소외감과 우울감이 높아도 삶의 의미를 가진 집단에서는 자살 생각이 낮았고,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자살 시도율이 낮았다(임소선, 2006). 심지어 자살 시도 후 생존한 노인 집단에서도 다시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데에는 가족에 대한 수용이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그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박지영, 2007).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금기가 높으며, 종교와 영성을 가진 청소년은 자살과 우울감이 낮다는 보고도 있다(전영란, 2007; Dew et al., 2009). Dyck(1991)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인 절망감이 심하더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많다면 자살에 대한 생각이 비교적 적다고 주장하였다.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의 유용성은 임상장면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Strosahl, Chiles와 Linehan(1992)에 따르면,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의 점수가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 지표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즉, 하위 요인인 생존과 대처 신념의 낮은 점수는 최근 자해 경험이 있는 정신과 환자에 있어 자살 의도가 높음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던 우울증 환자인 자살 시도자에게 있어서는 하위범주인 도덕적 금기에 대한 공포가 낮았다는 보고가 있으며(Lizardi et al., 2008), 알코올 문제를 지닌 우울증 환자나 양극성 환자,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여성의 자살 생각과 자살하지 않는 이유

는 역상관 관계에 있다는 점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Landall, Sher, Oquendo, Lizardi, & Stanley, 2009; Oquendo et al., 2000). 심지어 Rietdijk, Bosch, Verheul, Koeter와 Brink(2001)의 연구에서는 생존과 대처 신념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자해와 자살 행동이 약 7배 정도 많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이 척도의 자살 예측과 자살 보호 요인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는 현재 중국어와 프랑스어로 번역되었고 단축형과 청소년용으로도 개발되어 자살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Chan, 1995; Fitzpatrick, Euton, Jones, & Schmidt, 2005; Osman et al., 1996; Szanto et al., 2001). 하지만 문화적 차이에 의해 삶의 의미나 혹은 죽음을 회피하는 이유가 동서양에 따라 다를 수 있다. Chan(1995)은 홍콩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청소년이므로 자녀에 대한 걱정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5개의 하위 요인이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동양 문화권이 대부분 그러하듯 한국의 경우에도 유달리 '우리'를 강조하는 '우리주의(Weism)'로 인해 가족과 자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개념 모두를 가족주의의 틀 안에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최준식, 2001). 따라서 기존의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에서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자녀에 대한 걱정이 각기 다른 2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지지만, 이러한 분류가 한국에서는 동일한 범주로 묶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측된다.

자살 시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야 할 이유에 많은 비중을 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삶의 의미를 중

요시하며 삶에 대한 통제감이 높고 긍정적이거나 낙관주의적 관점을 지닌다는 주장이 있다(O'Connor & Cassidy, 2007). 특히 자살의 가장 큰 취약 요인 중 하나인 절망감을 지니고 있어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낙관주의는 자살 사고를 완충시켜준다는 보고가 존재한다(Shatter, Gillhan & Reivich, 2001). '낙관주의(optimism)'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를 하는 것(Scheier & Carver, 1992), 또는 사건의 귀인과 해석 양식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경험된 문제와 실패를 일시적이고 특수하고 외적인 것으로 귀인하여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Seligman, 1991). 따라서 이러한 낙관주의를 가진 사람은 동기와 성취, 신체적 안녕감이 높고, 우울 증상은 경미한 편이라고 보고되었다(노영천, 유순화, 2008). 이로 미루어보아, 낙관주의를 가진 이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살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인지적 몰락과 같은 파국적이고 왜곡된 관점과는 상반된 특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낙관주의 경향이 강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자살의 보호요인을 반영하는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 지향적인 한국문화의 특수성이 기존의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의 하위요인 분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삶의 긍정적 요소인 낙관주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자살하지 않는 이유의 정도가 더 많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방 법

### 문항번역절차

척도는 임상심리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임상심리학자 2인이 독립적으로 각 문항을 번역하였다.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영어권에 10년 이상 거주한 심리학 전공자 1인이 이를 역번역하였고, 역번역된 문항이 기존의 원 문항과 비교하여 의미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참여자

참여자는 20-69세 사이의 남녀 320명으로, 설문은 2009년 4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형마트와 00교회 및 00병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들이 응답한 설문은 자살 시도 유무와 횟수, 자살 생각 척도,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 사회 바람직성 척도 및 삶의 지향 척도를 포함한다.

### 측정도구

**자살 생각 척도.** Beck과 Maria(1979)가 개발한 Scale for Suicidal Ideation을 박광배와 신민섭(1991)이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변형시킨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3점 Likert척도로서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3개 문항(11, 13, 19)은 4점 Likert척도로 총점은 0-41점이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8이었다.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 Linehan 등(1983)이

개발한 Reasons for Living Inventory로 자살 위험에 있지만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의 신념 체계를 조사한 것이다. 생존과 대처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자녀에 대한 걱정, 자살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도덕적 금기의 6개 하위 범주로 나누어진 총 48개 문항의 6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48점에서 28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하지 않는 이유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5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자살 행동과 자살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본 연구에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고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사회적 바람직성을 함께 측정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Mae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M-C SDS)는 Crowne과 Marlowe(1960)가 개발한 것으로서 33개 문항을 이주일(1988)이 13개 문항으로 단축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예/아니오로 답하는 방식이며 역채점 문항은 8개이고,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3점이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3이었다.

**낙관성 척도.** Scheier, Carver와 Bridge가 1994년 개정한 삶의 지향 검사(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미래에 대한 일반화된 긍정적 기대로서의 낙관성을 측정하며 문항은 6개의 낙관성 측정 문항(3개의 긍정적 진술 문항과 3개의 부정적 진술

문항)과 피검자가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게 하기 위한 4개의 모호 문항(2, 5, 6, 8)으로 이루어져 있다. 낙관성 측정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써 부정적 진술문은 역점수로 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 범위는 6점에서 30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7이었다.

##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15.0을 이용하였으며, 가장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나열하였다. 척도의 타당도 연구를 위해 자살하지 않는 척도의 48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항 간 상관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을 제외 한 후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4개 요인을 지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준거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집단, 자살 생각은 있으나 자살 시도를 하지 않은 집단 및 자살 시도를 한 집단을 나누어 집단 간의 자살하지 않는 척도의 전체 점수와 각 하위 요인의 점수를 가지고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정도가 자살하지 않는 이유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수렴-변별 타당도를 위해 자살하지 않은 이유 척도의 점수와 낙관성, 자살 생각 등을 상관분석하였다.

## 결 과

### 인구통계학적 결과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30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이 중 남자는 143명(47.5%), 여자는 158명(52.5%)이다. 평균 연령은 37.58(SD=9.92)세로 20대가 87명(28.9%), 30대가 81명(26.9%), 40대가 93명(30.9%), 50대가 34명(11.3%), 60대가 6명(2.0%)이었다. 학력 분포는 대졸이 183명(60.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각각 고졸 59명(19.6%), 대학원졸 46명(15.3%), 대학 재학생은 10명(3.3%)이었으며, 초졸 2명(0.7%), 중졸 1명(0.3%) 순이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229명(76.5%)이었고 종교가 없는 경우는 72명(23.9%)이었다.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는 개신교 신자가 절반 정도인 138명(45.8%)이었고, 무응답이 68명으로 22.6%를 차지하였으며 가톨릭 47명(15.6%), 불교 40명(13.3%), 기타 7명(2.3%)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174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자 115명(38.2%), 이혼이나 별거 형태도 12명(3.3%)이었다. 자녀수는 없는 경우가 180명으로 59.6%를 차지했고 한 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100명(33.2%), 두 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14명(4.7%),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15명(5%)이었다.

전체 응답자 301명 중 자살 시도 경험자는 26명으로 약 8.6%를 차지했으며 그 중 자살 시도의 횟수는 1회(5.3%)가 가장 많았고, 최다 시도 횟수는 7회였다. 또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9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였다. 자살 생각 척도의 평균 점수는 7.30(SD = 7.15)점이었으며, 자살 생각 척도의 응답자 절반 이상은 2점 이하(54.3%)에 체크하였다.

### 구성타당도

척도 문항들의 요인을 추출해 내기 위해 주축 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고 각 요인간의 상관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회전방법은 사각회전(direct oblimin, delta=0)방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KMO(Kaiser-Meyer-Olkin)값은 .94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 유의 수준이 .05보다 낮아( $p = .00$ ) 자료의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우선, 요인에 대한 적재량이 .35 미만으로 낮은 문항(8, 23)과 문항-총점간의 상관계수가 낮은 .30 미만의 문항(5, 7, 18, 27, 41, 43,)을 포함한 총 8개의 문항을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10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Scree도표에서는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원 논문에서는 48개의 척도 문항을 결정하기 전에 72개의 문항을 중심으로 요인 추출을 했을 때 6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그 중 중복되거나 혹은 두 개 이상의 요인간의 상관이 .50 이상인 문항은 생략한 후 24개의 문항을 제거하여 모두 48문항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개 요인으로 지정하여 확정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 요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항들은 요인이 분명히 추출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공동체 의식에 의한 가족과 자녀에 대한 통합의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요인을 지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제 1요인은 전체 설명량 중 42.7%를 설명하며 모두 24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그 중 3개 문항(35, 39, 45)은 두 개의 요인에 모두 부하치가

높고 4개 문항(1, 9, 11, 16)은 다른 요인에 포함된 문항으로 나타나, 7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총 17개 문항을 확정지었다. 제 2요인은 전체 설명량 중 8.3%를 설명하는데 모두 7개 문항(6, 15, 26, 31, 33, 38, 46)이 부하되었다. 제 3요인은 설명량이 4.4%로서 6개 문항이었지만 한 개 문항(34)은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모두 해당되므로 제외하였다. 제 4요인은 설명량이 3.9%로서 3개 문항이 추출되었으나 두 개 이상의 요인에 해당된 한 문항(17)을 제외하고 두 개 문항(13, 29)이 선정되었다.

### 준거타당도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위해 자살 생각 척도에서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2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집단과 자살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집단을 첫 번째 집단으로 선정하고,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집단 즉, 자살 생각만 있었던 집단을 두 번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살 생각의 점수가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자살 시도가 있었던 집단을 세 번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 간의 자살하지 않는 이유 점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살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집단과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 및 자살 생각만 있었던 집단은 각각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의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 298) = 28.667, p < .001$ . 각 집단의 평균 점수는 자살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집단( $M = 4.65$ )과 자살 생각이 있었던 집단( $M = 4.33$ ) 및 자살 시도를 하였던 집단( $M = 3.71$ )간의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사회

표 1.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생존과 대처 신념	죽음 공포와 사회적 비난	가족 책임과 자녀 걱정	미래 기대
문항36. 나는 삶에 맞설 용기를 가지고 있다	<b>.867</b>	.152	.372	.513
문항 4. 나는 삶의 의욕을 가지고 있다	<b>.841</b>	.069	.327	.300
문항19. 나는 내 인생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b>.830</b>	.120	.318	.268
문항20. 자살하기에 내 인생은 매우 아름답고 소중한다	<b>.819</b>	.138	.314	.510
문항24. 나는 삶에 대한 애착이 있다	<b>.807</b>	.231	.219	.468
문항37. 나는 행복하고 내 인생은 만족스럽다	<b>.807</b>	.114	.350	.282
문항10. 나는 죽고 싶지 않다	<b>.793</b>	.276	.209	.372
문항40. 나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며 미래에는 더 행복해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b>.793</b>	.079	.426	.582
문항12. 인생이란 나에게 있어 모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다	<b>.755</b>	.207	.356	.442
문항44. 나는 자살하지 않는 이유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리라 생각한다	<b>.750</b>	.130	.319	.581
문항 2. 나는 어려운 문제들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b>.745</b>	.043	.301	.328
문항16. 가족들을 매우 사랑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가족들을 떠나고 싶지 않다	<b>.743</b>	.178	.529	.387
문항 3. 나는 내 삶과 운명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b>.741</b>	.167	.229	.075
문항42. 나는 삶의 욕구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	<b>.729</b>	.221	.405	.459
문항11. 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	<b>.727</b>	.150	.553	.440
문항35. 떠나기에 아직까지 나는 할 일이 많다	<b>.715</b>	.189	.354	.704
문항14.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그게 마지막이 아니란 걸 안다	<b>.709</b>	.173	.228	.557
문항25. 나는 너무 안정되어서 자살하지 않는다	<b>.703</b>	.224	.288	.277
문항22.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b>.682</b>	.047	.530	.459
문항45. 나는 죽음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본다	<b>.682</b>	.243	.430	.657
문항 9. 나의 가족들은 나를 의지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	<b>.668</b>	.132	.535	.199
문항 1. 나는 나의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b>.639</b>	.108	.459	.207
문항32. 나는 모든 것이 최선으로 해결되리라 믿는다	<b>.579</b>	.146	.471	.322
문항39. 나는 자살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며 진짜 성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b>.561</b>	.097	.464	.523
문항26. 나는 겁이 나서 자살을 시도할 용기가 없다	.152	<b>.813</b>	.026	-.015
문항38. 실제로 자살 “실행”이 두렵다(고통, 피, 폭력)	.247	<b>.804</b>	.177	.108
문항46. 나는 너무 서툴러서 자살 방법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098	<b>.710</b>	.210	-.004
문항3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걱정이다	.011	<b>.604</b>	.079	.245
문항33.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살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028	<b>.604</b>	.195	.092
문항 6. 나는 죽음이 두렵다	.223	<b>.571</b>	-.167	-.018
문항15. 나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187	<b>.526</b>	-.177	.234
문항30. 자살은 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줄 것이고 나는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489	.061	<b>.737</b>	.297
문항28. 자살은 내 자녀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99	.097	<b>.707</b>	.541
문항48. 가족들이 내가 이기적이거나 겁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441	.461	<b>.683</b>	.074
문항47. 나는 훗날 가족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	.502	.443	<b>.662</b>	.116
문항21. 자녀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536	.186	<b>.620</b>	.372
문항34. 나는 자살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여긴다	.403	.211	<b>.542</b>	.460
문항13. 나는 이루어지기 바라는 미래의 계획이 있다	.608	.081	.295	<b>.774</b>
문항29.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411	.225	.228	<b>.765</b>
문항17. 나는 인생이 주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고,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 보고 싶다	.551	.048	.288	<b>.562</b>
아이겐값	17.1	3.3	1.7	1.5
설명변량	42.7	8.3	4.4	3.9
누적변량	42.7	51.0	55.4	59.4

적 바람직성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자살하지 않는 이유의 점수에 따른 자살 시도 집단과 자살 생각 집단,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지 않은 집단을 분석한 결과 집단 구분의 효과가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212) = 0.16, p < .001$ .

또한 각 하위 요인 간에도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F(1, 264) = 38.829, p < .001$ . 표 2에는 특히 생존과 대처 신념에서 자살 형태의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즉, 자살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자살 생각만 있었던 집단, 그리고 자살을 시도한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다. 가족책임과 자녀걱정 요인은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 비해 자살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집단을 분명히 구분해 준다. 즉, 가

족과 자녀에 대한 책임과 걱정이 자살 생각을 하는 것마저도 인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미래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자살의 시행과 비시행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하위 척도가 되고 있다. 즉, 자살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살 생각이 있거나 혹은 이를 실행에 옮긴 적이 있는 집단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 한편,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요인은 자살 생각 및 시행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와 낙관성, 자살 생각과의 관계**

표 3에는 척도의 하위요인과 나머지 변인 간의 상관을 제시하였다.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의

표 2. 자살하지 않는 이유 하위 요인의 평균과 집단 구분에 따른 비교

척도	집단평균			F	사후검증
	NVS(n=248)	HSI(n=27)	HP(n=26)		
생존과 대처 신념	5.02	4.51	3.61	38.65***	a>b, b>c, a>c
죽음공포와사회적비난	3.80	3.80	3.47	.78	n.s
가족책임과 자녀걱정	5.20	4.77	4.36	10.53***	a>c, a=b, b=c
미래 기대	5.01	4.84	3.93	16.43***	a>c, b>c, a=b

\*a=NVS(Never Suicidal), b=HSI(History of Suicidal Ideation), c=HP(History of Parasuicide)

\*  $p < .05$ , \*\*  $p < .01$ , \*\*\*  $p < .001$

표 3. 자살하지 않는 이유 하위 척도와 관련 척도 간의 상관

하위척도	생존과 대처신념	죽음공포와 사회적비난	가족책임과 자녀걱정	미래기대	자살생각
생존과 대처신념					
죽음공포와사회적비난	.216**				
가족책임과 자녀걱정	.658**	.320**			
미래기대	.638**	.182**	.497**		
자살생각	-.243*	.040	-.106	-.169	
낙관성	.601**	-.060	.491**	.398**	-.323**

\*  $p < .05$ , \*\*  $p < .01$

하위요인 간에는 상호 상관이 높은 편이었으며, 자살 생각 척도와는 대체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그 중 특히 생존과 대처 신념의 하위요인과는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낙관성의 경우 생존과 대처 신념, 가족 책임과 자녀 걱정, 미래 기대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자살 생각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자살 생각 및 행동에 따른 낙관성의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F(2, 294) = 152.59$ ,  $p < .001$ . 사후 검증 결과, 자살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집단( $M = 3.77$ )의 낙관성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자살을 생각해 보았던 집단( $M = 3.54$ )이 뒤를 이었고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 $M = 2.84$ )의 낙관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척도의 본래 48개 문항을 대상으로 1차 주축분해법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스크리 도표를 참조하고 문항-총점간 상관이 낮거나 두 개 이상의 요인 부하가 내재된 문항을 제외하고 기타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4개의 요인을 지정하여 추출한 결과 총 31개의 문항이 추출되었고 이 문항의 전체 설명량은 59.4%였다.

요인 1의 17개 문항은 모두 생존과 대처 신념에 관한 것이었다. 설명량은 42.7%였고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5였다. 이 요인은 자살을 생각할 때라도 삶에 대한 의지나 인생의 긍정적인 면들을 고려하여 결국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원칙도의

명칭대로 '생존과 대처 신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7개 문항으로서 설명량은 8.3%이었고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79였다. 주로 죽음의 공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31번 문항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걱정이다"라는 사회적 비난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제 2요인의 명칭을 '죽음 공포와 사회적 비난'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의 설명량은 4.4%였으며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0이었다. 구성 문항 중 세 개 문항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두 개 문항은 자녀에 대한 걱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제 3요인을 '가족 책임과 자녀 걱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두 개의 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량은 3.9%였고,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68이었다. 문항 13("나는 이루어지기 바라는 미래의 계획이 있다")과 문항 29("나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는 원칙도에서 제 1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어서 '미래 기대'로 명명하였다.

기존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생존 및 대처 신념' 요인이 제 1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생존 및 대처 신념' 요인이 자살 보호 요인으로서의 강력한 검증력을 가짐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시도 및 자살생각의 횟수가 낮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이 요인을 통해 자살 실행 집단과 자살생각을 지니고 있는 집단과 자살 생각이 없는 집단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따라서 생존과 대처에 대한 강한 신념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감소시켜줄 뿐 아니라 자살을 생각했을지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게 하는 중요한 인지적 완충 장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Lizardi et al., 2008; Osman et al., 1996; Strosah et al., 1992).

두 번째 추출된 요인은 죽음 공포와 사회적 비난에 대한 것이다. 원척도에서는 자살 공포와 사회적 비난이 각각 독립적으로 추출되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측면이 함께 추출되었고, 특히 제 2요인 중 대부분은 자살 공포에 대한 문항이었으며 사회적 비난에 대한 내용은 한 문항 뿐이었다. 이는 죽음보다 체면의 깎임이나 체면 손상을 더 중시하는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특징(최상진, 김기범, 2000)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사회적 비난이 한 요인으로 묶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추출된 요인은 원척도의 2, 3번째 요인인 '가족에 대한 책임'과 '자녀 걱정'에 관한 것이다. 이는 앞서 예측했듯이 동양 문화의 집단주의적 경향과 더불어 개인보다는 '우리' 혹은 '전체 사회 속에서의 자기'라는 개념을 지닌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자살을 하지 않는 이유로서의 가족과 자녀가 하나로 통합된 개념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Chan(1995)의 홍콩 청소년 연구에서는 자살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 기존의 5개 하위 요인과는 달리, 긍정적 가치와 자기효능성, 낙관주의, 가족 걱정, 사회적 비난 염려와 자살공포 요인이 추출되었다. 또한 Chan 등(2009)의 홍콩 연구에서도 자살의 보호 요인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유일하게 발견되었다. 이처럼 동일 문화권에서의 자살 방지 요인 중 하나인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계속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혀져 왔다. 따라서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살 방지를 위해 가족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유대감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이 요인은 자살 생각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집단과 혹은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거나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 간의 구체적인 변별을 해 주고 있다. 즉, 가족과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편, 원래 척도에서는 추출되었던 '도덕적 금기(moral objection)'에 관한 요인이 본 연구에서는 추출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Landall et al., 2009; Rietdijk et al., 2001)에서는 도덕적 금기 요인이 자살 보호 요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한 것에 비해, 동양권 연구에서는 이 요인이 추출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Chan, 1995; Chan et al., 2009). '도덕적 금기'는 '나는 오직 신만이 내 삶을 끝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옥에 갈까봐 두렵다', '나의 종교적 신념이 자살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자살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여긴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이들 문항은 대체로 서양의 기독교적인 종교관과 거의 동일시되어 요인의 명칭마저도 '도덕적 금기'로 명명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이나 종교의 언급에 대한 문항은 총점과 상관이 낮아서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생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 중 기독교인이 절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서는 '종교 교리와 자살생각와의 이원화', 혹은 '기독교의 한국화'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새로운 요인인 제 4요인은 '미래 기대'에 대한 것이었다. 원래 척도에서는 미

래(future)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항들이 총 세 개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홍콩에서 실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에 대한 타당도 연구(Chan, 1995)에서도 낙관주의 요인이 독립적으로 추출되어 제 2요인이 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미래 기대’라는 두 개의 문항은 특히 실제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어도 자살 시도를 행할 지 여부를 구분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기도 한다. 자살 시도의 직접적 요인을 연구한 Baumeister(1990)와 신민섭(1992)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몰락이라는 현상을 들어 자살 시도 직전의 심리 상태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Williams(2001)의 자살 행동에 대한 고통호소 모델(Cry of Pain model)에 따르면, 자살이란 스트레스에 의한 손상과 거절에서 탈출구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구조 요인(rescue factors)인 사회적 지지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자살의 보호요소가 된다는 Williams의 주장은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 중 ‘미래 기대’가 자살 행동의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에서의 미래 기대 요소가 자살의 완충 요소로서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Beck의 자살 척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특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으로 인해 자살 생각이나 시행 여부에 대한 반응이 오염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또한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의 문항이 대체로 바람직성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여 공변량으로 처리하고 분석하였다(신민섭

등, 1990; Linehan et al., 1983). 그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자살 생각과 자살 시행 집단 간의 자살하지 않는 이유 점수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자살하지 않는 이유의 가치관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며, 구성 타당도를 확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자살 행동과 낙관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측한 바와 동일하게 자살을 시도한 집단, 자살을 생각해 본 집단, 그리고 자살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집단의 순으로 낙관성이 낮았다. 이 결과는 낙관성이 자살 생각과 시행에 대한 예방 혹은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와 낙관성 사이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위 요인 중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 요인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과는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생존과 대처 신념’ 요인이 높은 집단의 낙관성이 가장 큰 연관이 있었다. ‘생존과 대처 신념’의 진술문은 주로 현재 스트레스나 고난이 있음에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경험된 문제와 실패를 일시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인내하며 문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낙관주의적 신념과도 일맥상통해 보인다. 따라서 자살 극복이나 예방을 위한 하나의 접근으로서 낙관성 증진을 위한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Chang & Sanna, 2001; Seligman, Schulman, Alyssa, & Tryon, 2007).

낙관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는 낙관성이 적응과

행동, 건강,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역시 살아야 할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지혜(2007)는 낙관성 자체가 우울감을 저하시키는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낙관성이 높은 사람의 인지 과정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적응적인 결과를 이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신념의 반대가 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신념은 교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Seligman(1991)은 학습과 훈련, 치료를 통해 낙관성의 습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살하지 않는 이유 중 낙관주의와 관련 깊은 요인들이 ‘생존과 대처에 대한 신념’과 ‘가족 책임과 자녀 걱정’, 그리고 ‘미래 기대’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자살 예방 및 자살 시도 생존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 보호요인으로서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를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 및 본 연구에서만 추출된 새로운 요인으로 총 4개의 요인이 구성되었다. 자살 발생률과 자살 원인 및 자살 방지 요인은 문화나 인종 및 종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Malone et al., 200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역시 서구의 가치관과는 달리 동양적 가치관에 의해 가족과 자녀로 구분된 기존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났으며, 기독교 종교관에 초점을 둔 ‘도덕적 금기’보다는 ‘미래 기대’가 더 중요한 구성 변인으로 밝혀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자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살 보호요인으로서의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더불어, 특히 낙관성 증진에

중점을 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순규 (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66-93.
- 노영진, 유순화 (2008).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교사의 낙관성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열린교육연구, 10(3), 139-157.
- 박광배, 신민섭 (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 박상철, 조용범 (1998). 자살, 예방할 수 있다. 서울: 학지사.
- 박지영 (2007). 노인자살생존자의 자살경험에 관한 연구: 모과 옹두리에서의 비상.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민섭 (1992).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 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윤민재 (2008). 군인 인권과 사고(자살) 예방 프로그램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8(1), 79-109.
- 윤지혜 (2007). 낙관성이 우울과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양식을 매개변인으로. 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일 (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자기 검색 척도와 자기의식척도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소선 (2006). 청소년의 소외감·우울·삶의 의미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영란 (2007).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숙 (2005). 노인자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최준식 (2001).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eck, A. T., & Maria, K.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of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 Chan, D. W. (1995). Reasons for Living among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23(3), 347-353.
- Chan, W. S., Law, C. K., Liu, K. Y., Wong, P. W., Law, Y. W., & Yip, P. S. (2009). Suicidality in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the role of family and cultural influenc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4, 278-284.
- Chang, E. C., & Sanna, L. J. (2001). Optimism, pessimism, and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in middle-aged adults: a test of cognitive-affective model of psychological adjustment. *Psychology and Aging*, 16(3), 524-531.
-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 349-454.
- Dew, R. E., Daniel, S. S., Armstrong, T. D., Goldston, D. B., Triplett, M. F., & Koenig, H. G. (2009). Religion/spirituality and adolescents psychiatric symptoms: A review.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39, 381-398.
- Dyck, M. J. (1991).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mediating suicide ideation.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21(4), 360-373.
- Fitzpatrick, K. K., Euton, S. J., Jones, J. N., & Schmidt, N. B. (2005). Gender role,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e risk.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7, 35-42.
- Kissane, M., & McLaren, S. (2006). Sense of belonging as a predictor of reasons for living in older adults. *Death Studies*, 30, 243-258.
- Landall, R. V., Sher, L., Oquendo, M. A., Lizardi, D., & Stanley, B. (2009). Objections to suicide among depressed patients with alcohol use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
- Linehan, M. M., Goodstein, J. L., Nielsen, S. L., & Chiles, J. A. (1983). Reasons for staying alive when you are thinking of killing yoursel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2), 276-286.
- Lizardi, D., Dervic, K., Grunebaum, M. F., Burke, A. K., Mann, J. J., & Oquendo, M. A. (2008). The role of moral objections to suicide in the assessment of suicidal pati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2, 815-821.
- Malone, K. M., Oquendo, M. A., Hass, G. L., Eills, S. P., Li, S., & Mann, J. J. (2000). Protective Factors Against Suicidal Acts in Major Depression: Reasons for Living.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7), 1084-1088.
- Maris, R. W., Berman, A. L., & Silverman, M. M. (2000). *Comprehensive textbook of Suicidology*. New York, London. The Guilford Press.
- Marlowe, D., & Crowne, D. P. (1961). Social Desirability and Response to Perceived Situational Demand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5, 349-454.

- O'Connor, P. C., & Cassidy, C. (2007). Predicting hopelessness: The interaction between optimism/pessimism and specific future expectancies. *Cognition and Emotion, 21*(3), 596-613.
- Oquendo, M. A., Waternaux, C., Brodsky, B., Parsons, B., Haas, G. L., Malone, K. M., & Mann, J. J. (2000). Suicidal behavior in bipolar mood disorder: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ttempters and nonattempt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9*, 107-117.
- Osman, A., Kopper, B. A., Barrios, F. X., Osman, J. R., Besett, T., & Linehan, M. M. (1996). The brief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adolescents (BRFL-A). *Journal of Abnormal Clinical Psychology, 24*(4), 433-443.
- Range, L. M., & Knott, E. C. (1997). Twenty Suicide Assessment Instruments: Evaluation and Recommendations. *Death Studies, 21*, 25-58.
- Rietdijk, E. A., van den Bosch, L. M. C., Verheul, R., Koeter, M. W. J., & van den Brink, W. (2001). Predicting self-damaging and suicidal behaviors in female borderline patients: Reasons for living, coping, and depressiv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15*, 512-520.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eligman, M. E. P. (1991).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econd edition. New York: W.H. Freeman.
- Seligman, M. E. P. (2008). 학습된 낙관주의. 서울: 21세기 북스.
- Seligman, M. E. P., Schulman, P., Alyssa, M., & Tryon, A. M. (2007). Group prevention of depression and anxiety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6), 1111-1126.
- Shatter, Gillhan, & Reivich, (2001).
- Strosahl, K., Chiles, J. A., & Linehan, M. (1992). Prediction of suicide intent in hospitalized parasuicides: Reasons for living, hopelessness, and depression. *Comprehensive Psychiatry, 3*(3), 366-373.
- Szanto, K., Mulsant, B. H., Houck, P. R., Miller, M. D., Mazumdar, S., & Reynolds, C. F. (2001). Treatment outcome in suicidal versus non-suicidal elderly.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9*(3), 261-268.
- Williams, J. M. G. (2001). *The Cry of Pain*. London: Penguin.

원고접수일: 2009년 7월 8일

수정논문접수일: 2010년 3월 16일

게재결정일: 2010년 4월 15일

#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Gi-won Lee    Myoung-Ho Hyun    Su-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is a scale developed by Linehan and is made up of the reasons why people do not actually practice suicide when they thought about committing suicide. This scale consists of positive factors that prevent suicide(Survival and Coping Beliefs, Responsibility to Family, and Child-related Concerns) and negative factors about suicidal action(Fear of Death, Fear of Social Disapproval, and Moral Objec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301 adults(143 males and 158 females). As a result, it was factorized into 4 sub-scales (Survival and Coping Beliefs, Fear of Death and Social Disapproval, Family Responsibility and Child-related Concerns, and Future Expectation). The scores of all factors except Fear of Death and Social Disapproval could differentiate the group of people who never thought about suicide, the group of people who had suicidal thoughts, and the group of people who tried to commit suicide. Especially, Family Responsibility and Child-related Concerns classified whether people are thinking of suicidal thoughts including suicidal action and Future Expectation could separate attempters and non-attempters clearly. Moreover, people who had a tendency toward optimism had significantly high scores on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Based on these results,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on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re discussed.

*Keywords:*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validation, Optimism